

# 올 한해 복지대상자 권리보장 한층 강화

남원시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 ▲ 촘촘한 복지조사 체계 마련... 2025년 복지대상자 권리보장 강화

남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추진해 복지대상자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세계급어 부양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자 읍면동 생활보장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1일 1가구 방문' 원칙을 적용해 심층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 결과, 총 4,762가구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중 2,704가구가 신규 선정됐다.

정기·월별 확인조사 4,207건과 변동자료 3만 1,926건을 신속 처리해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 절차 안내도 강화했다.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복지 지원 대상 확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000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153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져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 수급권자의 건강지킴이 역할 강화

남원시는 당뇨 소모성 재료를 포함한 요양비 460건(9,2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88건(7,300만원)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

였다. 특히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을 1억 원으로 확대해 49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임플란트 등 치아 치료를 지원했다.

또한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입원 시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도 추진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실직·질병 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위해 총 12억500만원의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해 생계·의료 등 상생별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가며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고립·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살핌 강화, 소통 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원, 저장장박 해소 및 환경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 ▲ 자활사업 통한 자립 지원... 청년 중심 모델 확대

남원시는 지역 여건에 맞춘 청년 중심 자활근로사업단 발굴에 힘써 왔다. '달구연베이글' 개소에 이어 올해는 '파스쿠찌' 사업단을 신규 개점해 청년층의 직무 경험과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또한 구 동충차안센터를 디지털 카페 청년 제과점으로 조성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 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자활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공모 선정



지역자활센터 파스쿠찌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수급권자 건강지킴이 역할 강화  
지역 여건맞춰 청년 중심  
자활근로사업단 발굴에도 힘써  
장애인 욕구 변화 맞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전국 최고수준



장애인복지평가 최우수 포상식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포상 수여 2025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유공포상 - 보건복지부 주관 - 2025년 남원시 지자체 장애인복지 사업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으로 중앙자활자금 5,000만원을 확보해 신규 사업장 리모델링을 지원했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모 선정으로 광역자활센터 예산 2,500만원을 확보해 21가구에 집수리·청소·방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전국 최고 수준 지원

남원시는 장애인의 욕구 변화에 맞춘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2023년 제정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 및 고령자 492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7,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3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6년부터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돼 투석비 자부담의 50%,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 전국 유일 '중증' 분야로 선정돼 국비 2억6,600만원을 확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집 내 다목적 활동실을 확충한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규모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남원시는 2025년 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 평가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최우수'에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남원형' 복지 실현

남원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두터운 복지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우 기자

###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자 교육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